

머리 & 차례

머 리

국어 영역이 다른 영역과 달리
등급이 요동치는 이유는 잘못된 습관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어 영역 강의는
다음 두 가지
첫째, 제시문 해석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방식
둘째, 유형(접근법)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방식
으로 이루어집니다.
나름 의미가 있으나,
1등급에서 3등급을 결정짓는 요소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심리적 매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해해야만 변치 않는 1%가 가능합니다!

이 교재는
국어 영역 상위 1% 학생들이
틀리고, 고민했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들이 오답을 매력적으로 보는 이유를 중심으로
강의하고자 만든 강의용 교재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강의의 ‘물’은
‘이러이러해서 답이 ①이란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답을 ⑤라고 했단다!’를 설명합니다.

모든 선택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을 감당하는 거다.
사람들이 선택 앞에서 고민하는 진짜 이유는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선택으로 말미암은 비용을 치르기 싫어서다
내 선택과 그 결과로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로 인한 비용을 감당하겠다면,
그 지점부터 나는 세상 누구말도 들을 필요 없다.
타인 규범이 내 삶에 우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의 책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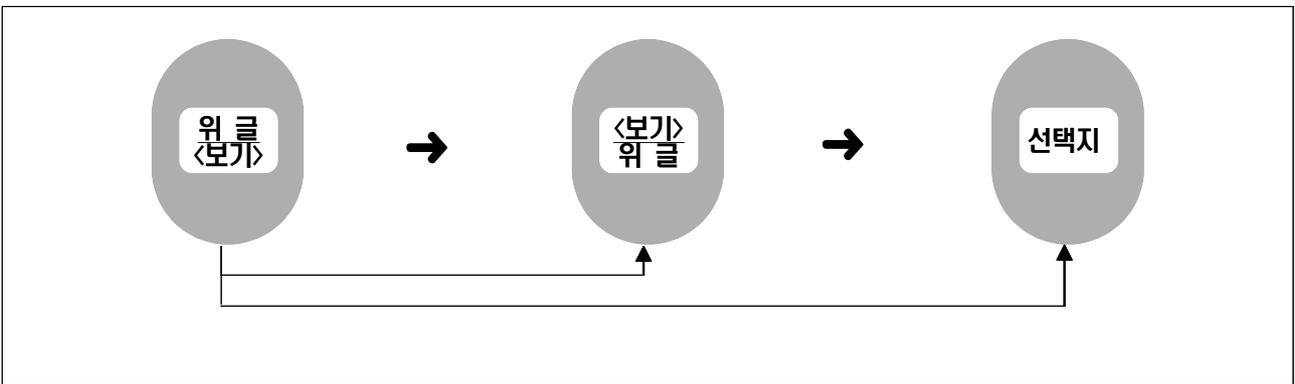
차 례

○ 국어 — 기본적 발상	002
○ 독서 — 약점 CHECK	004
○ 작문 — 약점 CHECK	036
○ 어법 ① — 약점 CHECK	051
○ 어법 ② — 약점 CHECK	097
○ 운문 문학 — 약점 CHECK	109
○ 산문 문학 — 약점 CHECK	179

국어 영역 문제 접근의 기본적인 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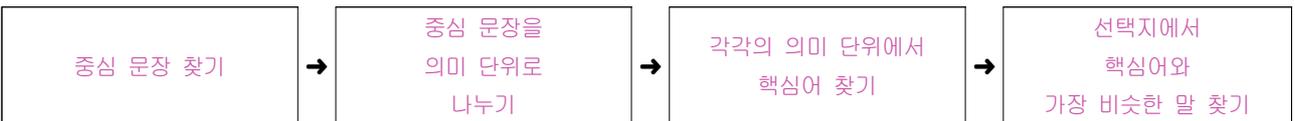
기본 열개

- ① 요구 사항을 확인하자!(발문 → <보기> → 선지)
- ② 선택지에서 가장 비슷한 말을 찾자!



문장 (선택지) 읽기 요령

- 문장의 형태 : A는 (B를 / B로써 / B에게 / B에서 / B라는 점에서) C하다.



매력적인 선택지를 만드는 요령

- 출제자는 느낌이 비슷한 범주의 단어들을 조합하여 선택지를 만든다.
- 출제자는 정답인 ‘근거’는 **매력적 단어로 바꾸지만**, 오답은 제시문에 있는 **특정 단어(구절)을 그대로** 선택지를 만든다.
- 출제자는 선지 자체를 논리적(인과적)으로 만든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제시문과 선지를 분리시킨다.

강의 녹취록 ①

||01|| '국어 영역' 문제 접근의 기본 열개를 알아보자

⇒ 첫째, 요구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할 때~'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하자! 답의 근거를 어디서 찾는 것이 현명할까? 제발! 풀라는 대로 풀자! 내가 풀라는 대로 풀면 망한다. 문제에서 풀라는 대로 풀자고! 제발!

둘째, '비슷한 말 찾기'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두 가지이다.

먼저, 사람들은 무척 시각적(감각적)이다. 출제자는 항상 그러한 사람들의 속성을 이용해서 매력적 오답을 만든다. 오답을 제시문에 있는 특정 단어(구절)을 그대로 이용하여 선택지를 만드는 것이다. 그럼, 학생들은 항상 이렇게 질문한다.

“쌤! ②번 왜 안 돼요? 둘째 단락 셋째 줄에 있는데요!”

다음으로, 사람들은 생각하는 유일한 동물이라 하지 않는가? 그래서일까? 제시문을 읽고, 항상 생각하고 부지불식간 반응한다. 출제자는 이 또한 이용하여 매력적 오답을 만드는 것이다. 그럼, 학생들은 항상 이렇게 질문한다.

“쌤! 이러니까 요러니까 ②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2|| 근거(대상)와 결론으로 나누어 읽는 습관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안정적 1등급은 나올 수 없다.

⇒ 하나의 퀴즈를 내본다!

'이나영이 눈이 커서 예쁘다'라는 문장을 보자!

국어 문제 접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이 커서'이다. 그것이 이 문장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은 항상 근거(대상)를 가지고 장난친 것들이다. '눈이 커서'를 '코가 커서' 따위로 바꿔서 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서술어(결론) 중심으로 읽는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예쁘다'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쁘다'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어 영역을 못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공부를 못하는 것이다. 이런 습관을 고치기 전에는 안정적 1등급이 절대로 나올 수 없다.

이를 일반화하면 'A(화제) = B(근거) → C(결론)'이다.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염두해야 할 것은 'B(근거)'이다.

|| 01 || 개요의 초고를 작성하고 세 가지 글감을 접하였다. 글감을 모두 활용하여 개요를 보완하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개 요〉	〈글 감〉
<p>주제 : 환경 영향 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p> <p>I. 서론</p> <p>II. 본론</p> <p>1. 현황</p> <p>2. 문제점</p> <p>가. 제도상의 문제</p> <p>나. 운영상의 문제</p> <p>3. 개선 방안</p> <p>가. 제도의 개선 방안</p> <p>나. 운영의 개선 방안</p> <p>III. 결론</p> <p>— 환경 영향 평가의 내실화 촉구</p>	<p>ㄱ. 독일과 같은 선진국들은 개발 사업을 승인하는 정부 기관이 환경 영향 평가를 직접 수행한다.</p> <p>ㄴ. 우리나라에서는 개발 사업자가 주체가 되어 환경 영향 평가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정부 기관에 보고한다.</p> <p>ㄷ. 우리나라에서 개발 사업자가 왜곡된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보고하여 사업을 승인받은 사례도 있다.</p>

- ① ‘II—1’에 ‘선진국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환경 영향 평가 제도의 성과’를 제시한다.
- ② ‘II—2—가’에 ‘환경 영향 평가의 객관성 부족’이라는 하위 항목을 설정한다.
- ③ ‘II—2—나’에 ‘환경 개선 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 소홀’이라는 하위 항목을 설정한다.
- ④ ‘II—3—나’에 ‘엄격한 환경 영향 평가 기준 마련’이라는 하위 항목을 설정한다.
- ⑤ ‘III’에 ‘선진국 수준의 환경오염 처리 시설 의무화 강조’라는 내용을 추가한다.

[2008수능09번]1) [답] ②

[해] 국어 학습의 기본적 발상은 ‘발문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보통 이런 생각을 한다. ‘개요 문제니까, 하나씩 꼼꼼하게 대응시켜 볼까?’ 맞다! 개요 문제니까 꼼꼼하게 대응시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발문을 꼼꼼하게 보면, 굉장히 쉽게 풀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국어 공부에 있어서 근거와 결론으로 나누어 읽는 습관이 되어야만 이 모든 것이 쉽게 해결된다. 특히 근거가 결론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부탁한다.

발문은 다음과 같다.

글감을 모두 활용하여 개요를 보완하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위 발문을 근거와 결론으로 나누어 보면

근거는 ‘글감을 모두 활용하여’이며, 결론은 ‘개요를 보완하려고 할 때’이다.

근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이다. 따라서 주어진 글감 ㄱ~ㄷ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정답이 되는 것이다.

즉 글감 ㄱ~ㄷ을 다 포괄해서 정리해 보면,

선진국들은 정부 기관이 환경 영향 평가를 직접 하는데,

우리나라는 개발 사업자가 환경 영향 평가를 하다 보니, 환경 영향 평가가 왜곡된다는 것이다.

고로 정답은 ② ‘환경 영향 평가의 객관성 부족’이다.

[간/단/정/리]

- 발문의 요구사항 : 글감을 모두 활용하여 / 개요를 보완하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02 || 다음 <보기>의 ㉠의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보 기> —

이것은 춘분을 지나서 첫 보름달이 뜬 후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한 교회의 전통적 규정에서 볼 때,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는 문제를 낳았다. 그것이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역법 개혁을 명령한 이유였다.

- ① 부활절을 정할 때는 음력처럼 달의 모양을 고려했군.
- ③ 서양의 태양력에서도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고려했군.

[2010수능33번]2[답] ①

[해] 국어영역 공부에 있어서, ‘국어영역의 모든 답은 제시문 속에 있다’는 말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특성에 대한 맹신과 시각에만 의존하는 한국 사람의 속성으로 인해 매력적 오답에 낚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제시문에 있는 특정 단어(구절)를 그대로 이용하여 선택지를 만드는 경우이다. 제시문에 있는 ‘보름달’이라는 단어가 선택지 ③에 그대로 있다. 그러다 보니, 문제를 푸는 사람들은 판단이 순간 중지되고, ③을 선택한다. 그러나 제시문에서 ‘보름달이 뜬 후~’라 함은 ‘동그런 달이 뜬 후~’를 의미한다. ① 선택지의 핵심어는 ‘달의 모양’이고, ③ 선택지의 핵심어는 ‘주기’이다. 따라서 답은 제시문에서 ‘동그런 달이 뜬 후~’와 가장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가진 선택지는 ①이다.

|| 03 || 다음 <보기>에서 ㉠의 의미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 재즈는 본격적인 ㉠ 크로스오버(crossover) 성향의 음악이라고 할 수 있다.
- ㉡ 최근에 인기를 얻고 있는 크로스오버 음악은 클래식 요소와 재즈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음악이다.
- ㉢ 우리 귀에 익숙한 클래식 음악의 선율이 어떤 음악 문화를 만나더라도 포용력을 발휘한다.
- ㉣ 다양한 문화와 접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띤다.
- ㉤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재즈를 폭식증에 걸린 공룡같이 소화력이 왕성하다고 말한다.

- ① 이질적인 영역을 넘나드는 행위
- ② 작품성보다는 인기를 추구하는 행위
- ③ 감상자의 정서에 쉽게 수용되는 행위
- ④ 익숙한 형태를 새롭게 개조하는 행위
- ⑤ 전문적이라기보다는 취미로 하는 행위

이[답] ① [해] 비문학 독해의 핵심은 ‘통일성’과 ‘일관성’이다. ‘통일성’과 ‘일관성’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Keyword로 뭉치고, Keyword로 흩어진다.’이다. ㉠~㉤의 Keyword(핵심어)를 확인하자. ㉠ ‘크로스오버’, ㉡ ‘~혼합된 형태의~’ ㉢ ‘~어떤 음악 문화를 만나더라도’ ㉣ ‘다양한 문화와 접하면서’ ㉤ ‘폭식증에 걸린 공룡’이다. 고로 ㉠~㉤의 Keyword(핵심어)를 종합해 봤을 때, 가장 비슷한 의미를 지닌 선택지는 ① ‘이질적인 영역을 넘나드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오/답/피/하/기]

국어에서 학생들이 질문하는 형태는 두 가지이다.

첫째, 시각에 의존하는 형태

둘째, 생각(반응)하는 형태

이 두 가지를 문제에 적용해 보자!

첫째의 오류를 범하는 학생은 이렇게 질문한다.

샘! ㉣는 왜 안 돼요? ㉢에서 ‘익숙한 클래식~’이라는 말이 있는데~

둘째의 오류를 범하는 학생은 이렇게 질문한다.

샘! ㉢은 왜 안 돼요? ㉠ ‘크로스오버’, ㉡ ‘~혼합된 형태의~’ ㉢ ‘~어떤 음악 문화를 만나더라도’ ㉣ ‘다양한 문화와 접하면서’ ㉤ ‘폭식증에 걸린 공룡’이다. 이러니까 ‘감상자의 정서에 쉽게 수용되는~’지 않을까요?

정답 및 해설

- 01)[답] ②
- 02)[답] ①
- 03)[답] ①

[해] 비문학 독해의 핵심은 ‘통일성’과 ‘일관성’이다. ‘통일성’과 ‘일관성’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Keyword로 뭉치고, Keyword로 흩어진다.’이다. ①~⑤의 Keyword(핵심어)를 확인하자. ① ‘크로스오버’, ② ‘~혼합된 형태의~’ ③ ‘~어떤 음악 문화를 만나더라도’ ④ ‘다양한 문화와 접하면서’ ⑤ ‘폭식증에 걸린 공룡’ 이다. 고로 ①~⑤의 Keyword(핵심어)를 종합해 봤을 때, 가장 비슷한 의미는 선택지는 ① ‘이질적인 영역을 넘나드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오/답/피/하/기]

국어에서 학생들이 질문하는 형태는 두 가지이다.

첫째, 시각에 의존하는 형태

둘째, 생각(반응)하는 형태

이 두 가지를 문제에 적용해 보자!

첫째의 오류를 범하는 학생은 이렇게 질문한다.

샘! ④는 왜 안 돼요? ③에서 ‘익숙한 클래식~’이라는 말이 있는데~

둘째의 오류를 범하는 학생은 이렇게 질문한다.

샘! ③은 왜 안 돼요? ① ‘크로스오버’, ② ‘~혼합된 형태의~’ ③ ‘~어떤 음악 문화를 만나더라도’ ④ ‘다양한 문화와 접하면서’ ⑤ ‘폭식증에 걸린 공룡’ 이다. 이러니까 ‘감상자의 정서에 쉽게 수용되는~’지 않을까요?